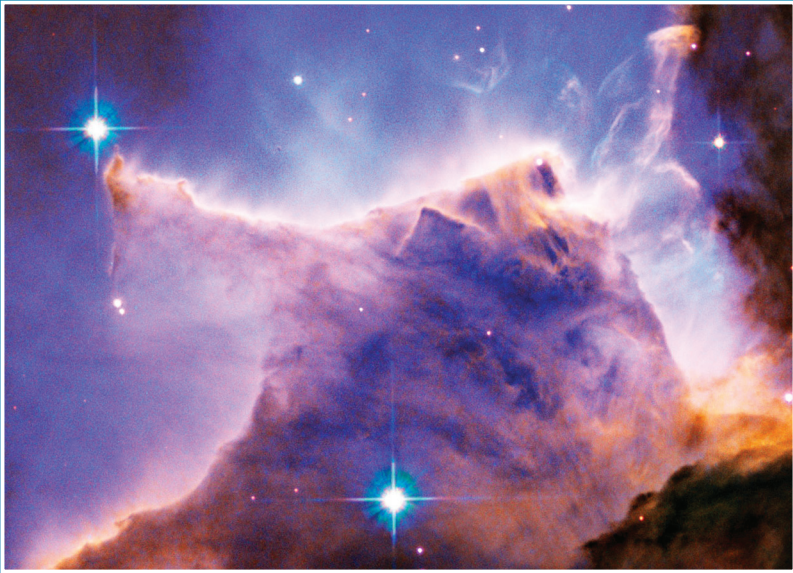


CREATION *Truth*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NEWSLETTER

Volume 23 Number 09 09 2015



별들의 창조는 사실상 끝났다

국제 천문학자들은 최근 바깥 우주의 뜨거운 가스 구름이 방출하는 빛의 특정한 파장을 분석했다. 푸른 별과 같은 매우 뜨거운 별들은 이러한 성운 내부, 혹은 근처에서 성운이 특별한 빛을 방출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공급한다. 세속적 천문학자들은 먼 거리에 있는 격동적인 가스가 있는 이러한 성운 내부에서 별들이 형성된다고 확신하고 있다.

Monthly Notices of the Royal Astronomical Society 지에 논문을 낸 연구팀은 광범위한 적색편이로부터 온 빛을 조사했다. 적색편이 - 광원이 내는 빛의 스펙트럼이 파장이 긴 빨간색 쪽으로 치우치는 효과 - 가 크다는 것은 관찰자와 빛의 근원 사이에 거리가 더 멀다는 것을 가리킨다. 따라서 그들은 가깝고 먼 곳에서 온 빛을 조사했다.

어떤 이들은 적색편이가 더 크다는 것은 또한 빛이 먼 곳의 발광성운으로부터 출발한 지 더 오랜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여긴다. 그러나, 이는 빛이 모든 방향으로 같은 속도로 여행한다는 가정을 전제해야 하는데, 이 가정을 아인슈타인의 시간의 동기화 (Einstein synchrony convention)라고 부른다. 이 가정은 실험으로 확인된 적이 없다. 그 누구도 이 가정을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을 고안한 적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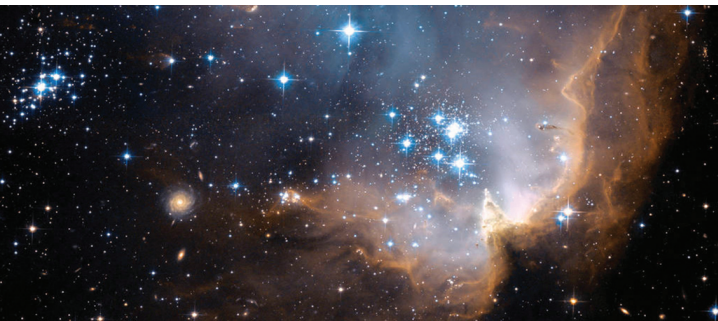
천문학자들은 많은 뜨거운 가스가 더 큰 적색편이를 갖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은 그 결과를 모든 별들 중의 절반이 100억년에서 80억년 전 사이에 자연적으로 형성되었다고 해석한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증명되지 않은 가정이 그러한 결론을 뒷받침한다고 고려할 수 있을까, 이러한 해석은 단순한 추측이나 다름없다.

이 연구를 소개한 뉴스는 이러한 가정들을 언급하지 못했다. 예를 들면, 한 언론 발표에서 일본 국립천문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동일한 방법과 기술을 사용하는 것은 별을 만들고 있는 수백개의 은하를 포함한 우주의 상당 부분을 얻기 위한, 과거를 볼 수 있는 강력한 방식이다.” 그러나 천문학자들이 정말로 과거를 보고 있는가? 그리고 별을 만들고 있는 은하는 정말로 존재하는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어떤 증거들은 이러한 주장을 반박한다. 먼저, 별이 형성된다고 주장하는 은하들의 뜨거운 가스에서조차 별이 형성되는 것은 단 한번도 관찰된 적이 없다. 이론적으로 별들은 근처의 별의 폭발이라고 하는 매우 비현실적인 과정을 통해서만 형성된다고 한다. 그리고 그 폭발한 별이 먼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근처의 또 다른 별의 폭발을 필요로 한다. 그렇다면 명백하게, 최초의 별이 만들어 질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더욱이, 이러한 과정은 우주가 수없이 많은 별들의 폭발로 인한 잔해들로 가득차 있도록 해야한다. 하지만, 우주는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며, 이 사실은 초신성 잔해를 찾고 있는 세속적 천문학자들에게 있어서 커다란 문제이다.

먼 곳에 있는 이러한 발광성운들이 별들의 인큐베이터라고 생각하게 하는 그 어떤 과학적인 이유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우주의 창조자를 제외시키는 자연주의적 세계관에서, 별들의 존재를 정당화시키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성경은 하나님이 모든 별들을 하루만에 만드셨고 그 창조 사역을 마치셨다고 말씀한다. 이 말씀에 근거하면, 우리는 오늘날 별들이 생성될 것을 기대 하지 않을 것이다. 별들의 생성은 관찰 사실이 아닌, 가정일 뿐이다.

둘째, Monthly Notices 지의 저자들은 큰 적색편이가 수십억 년과 동일하다고



가정했다. 동일한 타당성을 가지고, 우리는 발광체로부터 출발한 빛이 관찰자에게 올 때는 즉시적으로 오고, 다시 돌아갈 때는 왕복시 균일한 속도로 이동한다고 가정되어진 빛의 속도의 절반으로 이동한다고 가정할 수

도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는, 별빛은 비록 수백조 마일이나 떨어져 있을지라도 바로 지금 일어나는 일을 보여주는 것이 된다.

빛이 관찰자로 향하는 속도와 관찰자로부터 출발하는 속도가 동일하다고 가정하는 아인슈타인의 시간의 동기화를 거부하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별들이 수십억 광년 거리에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것들이 반드시 수십억 년이나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먼 거리에 있는 별들과 은하들이 수십억 년 되지 않았다고 하는 관찰 가능한 증거들이 존재할까?

그렇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국제 천문학 연구팀이 연구한 그 발광성운들 속의 푸른 별들이 바로 이러한 증거이다. 푸른 별들은 매우 빨리 연소하기 때문에 단지 백만 년 동안만 지속되는 것이 가능할 뿐이다. 그리고 이러한 푸른 별들은 가깝고 먼 우주 전체에서 발견된다. 그리고 이것은 우주가 세속적 천문학자들이 인정하려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젊다는 것을 보여준다.

나선형의 은하 역시 우주에 있는, 오래 지속될 수 없는 타이머이며 (나선 안쪽의 회전 속도가 나선 바깥쪽의 회전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흐르면 나선형태는 사라지고 디스크 형태로 변하게 되기 때문), 아직도 똑딱거리며 가고 있다. 그것들 역시 가까운 우주로부터 먼 우주까지 전체에 존재하기 때문에, 수십억 년이라는 우주의 연대를 반박한다.

별들이 오늘날 형성되는가? 관찰 가능한 사실에 따르면 그렇지 않다. 천문학자들이 망원경을 통하여 과거를 보고 있는가? 오직 그들이 그렇다고 가정할 때만 그렇다. 그리고 먼 곳에 있는 푸른 별들과 나선형의 은하는 우주가 수십억 년 이상 되었다고 하는 주장을 논박한다.

연구자들은 별들의 형성이 극적으로 느려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들의 관찰 사실은 별들의 창조가 완전히 멈췄다고 하는 성경 말씀과 일치한다.

Brian Thomas, Study: Star Formation Is Virtually Finished. ICR, Article posted on November 20, 2012 / 번역: 이충현



유신론적 진화론 3

점진적 창조론:

하나님께서 수십억 년 동안 창조와 멸종을 반복하심

점진적 창조론이란 한마디로 하자면, 수십억 년의 지질시대 동안 하나님께서 진화의 순서로 창조와 멸종을 반복하셨다는 다협이론이었다. 점진적 창조론과 보다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졌던 유신론적 진화론과 차이점을 말하자면 유신론적 진화론은 하나님께서 아메바와 같은 단순한 생물을 창조하신 후에 수십억 년 동안 '진화하도록 내어두셨다'고 하는 반면에, 점진적 창조론은 하나님께서 수십억 년 동안 '진화의 순서로 창조하셨다'는 이론이다. 그러나 이 역시 단지 창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화 역사를 보여주는 지질시대를 그대로 인정하기 때문에 사람이 창조되기 이전에 이미 멸종도 일어났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며, 실제로 점진적 창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를 받아들인다.

점진적 창조론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전에 이 이론이 나타나게 된 배경을 이해하는 것은 도움이 될 것이다. 1980년에 시카고 자연사박물관에서 '대진화'라는 제목으로 당대 최고의 진화론 과학자들을 포함해서 160명이 모인 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의 결과는 한 기자에 의해 사이언스지에 실렸다. 제목은 "해고될 위험에 있는 진화론"(Evolutionary theory under fire)이었다. 이 모임에서 진화론자들이 진화론 자체를 포기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두 가지 치명적인 문제점을 드러냈다.

1. 소진화가 축적되어 대진화가 일어나는 메커니즘의 부재
2. 화석에서 전이 형태의 부재

첫 번째 그들의 결론은 종류가 변하는 대진화가 설명될 수 없다는 말이다. 생

물학적 증거가 없다는 의미다. 다른 하나는 화석에 관한 내용이다. 화석에서 진화되는 과정인 중간 단계의 전이 형태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진화론에 대한 지질학적 접근의 실패를 의미한다. 사실상 진화론의 핵심인 이 두 가지의 과정을 설명할 수 없고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점진적 창조론은 이와 같이 진화론자들의 자세가 변하는 시대적 배경에서 등장했다. 즉 진화론자들이 대진화에 대한 회의적 결론과 전이 화석의 부재를 선언하던 시점이었다는 점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진화론자들이 버리지 않는 빅뱅, 지구의 나이, 진화의 순서 등은 그대로 받아들이자는 것이다.

이것의 등장으로 창조과학계 안에서는 적잖은 당황스러움이 있었다. 왜냐하면 이들은 분명히 진화론자들은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이들은 묘한 입장을 고수했는데 진화를 반대하면서 성경도 반대했다. 이때만 해도 창조과학의 주된 타겟은 세상에 널리 퍼진 진화론이었다. 물론 교회 안에도 진화론과 성경을 타협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했지만 이런 사람들도 결국 진화론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면 자신의 이론을 버리게 되기 때문에 세상을 대상으로 삼았던 것이다. 그런데 1980년대 말, 교회 안에 이 독특한 이론이 등장한 것이다.

불행하게도 많은 미국 교회는 이 이론을 환영하였고 교회에서 가르치기도 했다. 지금도 많은 미국 교회에서는 이 이론을 가르치고 있다. 그리고 다음세대를 교회에서 떠나게 했다. 교회 안에서 성경이 틀려도 된다고 가르쳤기 때문이다. 단지 미국뿐 아니라 한국 교회에서도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런 면에서 다음 회까지 연장해서 비교적 상세히 다룰 예정이다. 다음 회에서는 점진적 창조론자들이 주장하는 내용과 과학적 성경적 문제점을 다룰 것이다.



이재만 회장
지질학, 과학교육학

17차 유학생 창조과학탐사 모집

지난 2년 동안 중단되었던 유학생 창조과학탐사를 다시 시작할 수 있어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유학생 창조과학탐사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유학생들에게 성경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후원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기간 2016년 1월 4-7일(월-목)

경유지 LA 출발- Mojave Desert- Grand Canyon- Bryce Canyon- Zion Canyon- LA 도착

참가자격 미국에 유학중인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

인도 이재만 선교사(지질학, 과학교육학, 구약학 석사)

참가비 \$50 (후원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10%에 해당하는 금액임)

창조과학 탐사

지난 한달 동안 여덟 팀의 창조과학탐사가 이어졌습니다. 여섯 번의 한어권과 두 번의 영어권이 있었습니다. 창조과학선교회 캘린더가 창조과학탐사로 가득 찼었습니다.

연합팀(6/29-7/6) 5년전 참석하셨던 이승규 박사님과 장유순 권사님께서 주관하셔서 이루어졌습니다. 참석자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나누며 궁금증이 풀어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창조과학탐사는 친분이 있는 분들이나, 비슷한 직종을 가진 비슷한 공감대를 갖고 있는 분들로 구성되어



진행될 수 있다는 가능성과 그 효과를 보여준 기회였습니다. 이를 위해 노력해주신 장유순 권사님께 감사 드립니다.

컴패션과 홍콩 중앙교회(7/6-11) 한국컴패션(대표 서정인 목사)과 홍콩중앙교회(담임목사 이홍배)에서 함께 모여서 참석하였습니다. 지난 해 8월 서정인 목사님께서 참석하신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첫 날부터 즐겁고 진지한 시간을 이루었습니다. 참석하신 분들은 진화론의 영향이 이 시대에 얼마나 깊게 침투해있는지, 그리고 교회가 진화론에 얼마나 영향을 받고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지막 날 창조과학선교회에 보내주신 후원에 감사 드립니다.

한동대학교 교수(7/13-19) 한동대학교 교수진을 주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김영길 전 총장님 내외분을 비롯해서 교수들, 부산창조과학 후원회를 통한 청년들도 참석했습니다. 참석하신 교수진들은 한동대학교가 대표적인 기독교 대학으로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성경이 역사적 사실임을 전달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확신했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 이 시



온누리 미션



연합팀



컴패션



한동대

대에 창조과학이 귀중한 도구임을 공감했습니다. 또한 어떤 경우도 유신론적 진화론이 다음 세대에 신앙을 전수할 수 없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그 위험성을 막는데 한동대학교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한동대학교 교수를 위한 창조과학탐사 참가비 전액은 후원에 의해 진행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행사는 매년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프로그램을 위해서 후원해주신 교회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7월에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더 많은 교수진이 참석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후원의 동참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부산창조과학 후원회를 통하여 다섯 명이 참석했습니다. 부산창조과학 후원회는 다음 세대에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 청년들을 창조과학탐사에 보내고 있습니다. 전액 후원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석한 젊은이들은 성경에 대한 확신뿐 아니라 이 시대를 파악하고 돌아갔습니다. 후원해주신 부산창조과학 후원회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안산동산고등학교(7/23-26) 안산동산고등학교

교는 지난 3년간 매년 참석하고 있습니다. 54명이 참석하여 버스 한 대가 꽉 찼는데 이번에는 홍원용 교장 선생님도 함께 하셨습니다. 청소년 시기부터 진화론에 벗어나 성경이 역사적 사실임을 배우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크리스천 고등학교로서 이번에도 참석하신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 수십억 년의 진화론이 증거 없는 허술한 이론인 것과 하나님께서 성경대로 행하신 사실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지막 날 나눈 한 명 한 명의 간증은 창조과학탐사가 각자에게 얼마나 귀하게 영향을 주었는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월드리더스쿨(7/27-8/2) 월드리더스쿨(대표 박판기 목사)에서 처음으로 창조과학탐사에 참석했습니다

서와 함께 청소년들의 성품을 변화시키

다. 월드리더스쿨은 독

키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번에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또한 부모님들과 선생님들까지 모두 참석하여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월드리더스쿨 역시 성경에 대한 확신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성품으로 변하는 첫 걸음임을 공감하며, 앞으로 정기적으로 참석하기를 희망했습니다.

샌디에고 갈보리교회(8/3-5) 샌디에고 갈보리 교회와 한빛교회를 주축으로 각지에서 여러

분들이 모여서 사흘간의 창조과학탐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랜드캐년과 선셋 분화구를 통해 홍수심판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주선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영어권 창조과학탐사: 나침반 교회(7/8-10)와 OMA(7/13-16) 김선욱 박사님께서 인도하시는 영어권 창조과학탐사가 연이어 진행되었습니다. 나침반 교회(담임목사 민경엽)와 OMA(Onnuri Mission Alliance: 온누리교회 연합)가 각각 출발했습니다. 영어권 2세대들이 참석하여 진지하고 열띤 질문이 이어졌으며 성경에 대한 증거들을 확인하고 돌아갔습니다. 영어권 사역을 위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창조과학세미나 창조과학탐사뿐 아니라 세미나도 이어지는 한 달이었습니다. 이재만 선교사는 세리투스장로교회(7/22)와 오렌지가나안교회(8/8-9)에서 세미나를 인도하였습니다. 또한 노휘성 강사는 여름 방학 기간 동안 초등학교와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창조과학 강의를 하였습니다. 7월 5일과 8월 2일에는 은혜와 진리교회(담임목사 김국현)와 하늘영광교회(담임목사 차권희)가 연합으로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를 열었으며, 매주 화요일에는 소망장로교회(담임목사 성요셉)에서 진행되는 여름 캠프에서 창조과학 강의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ITCM 모집

제 7기 창조사역 집중 훈련(Intensive Training for Creation Ministry; ITCM)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제 7기 ITCM은 2015년 12월 22일부터 8주간, 미국 엘에이(Los Angeles)에 소재한 창조과학선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지원 자격: 대학교 2학년 이상의 청장년으로, 창조과학 사역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전문적으로 사역하기 원하는 자로서, 창조과학선교회 홈페이지(www.HisArk.com About Act)에 명시된 신앙고백에 동의하는 자입니다.

훈련 내용: 성경-과학-사역 이 세 부분의 균형 잡힌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창조과학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에서 8주간 합숙을 하며 창조과학탐사와 세미나 및 필드 트립에 참여합니다. 더불어 성경공부와 창조과학 도서 읽기, 프리젠테이션 및 토의 활동 등을 통해 성경적인 창조론의 중요성 및 실재를 입체적으로 습득하며, 진화론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절대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신뢰하고 증거할 수 있는 지식과 방법들을 배우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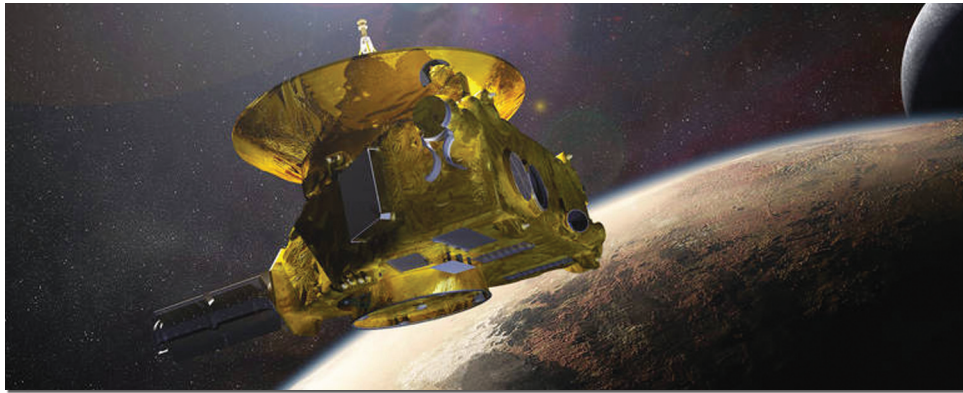
ITCM 지원 방법

1. 신앙고백: www.HisArk.com About Act의 What We Believe에 명시된 6 항목에 동의하는 개인적인 신앙 고백서 1부
2. 대학 혹은 최종 학교 성적 증명서
3. 본인 소개서 1부 (지원동기와 이력서 포함하는 자기 소개서 1.5 페이지, 양식 없음)
4. 참고인 3명(연락처가 명시된 참고인 3명 중 1인의 추천서 포함)
위 4 가지 서류를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원 서류는 현재 접수 중이며, 서류 심사와 면담(원거리의 경우 전화통화) 후 8~10월 사이에 7명을 선발합니다.

보내실 곳: 노휘성`remaininhislove@gmail.com`

● ITCM지원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HisArk.com) [훈련 프로그램]을 참조해주시고, 궁금하신 점은 이메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뉴-호라이즌스 우주선 명왕성 탐사, 진화의 증거 찾았나?



지난 2015년 7월 13일 미국 동부 시간 오후 4시 뉴-호라이즌스 무인 우주탐사선은 9년 6개월 동안 우주를 달려서 명왕성으로부터 12,500km 거리까지 접근하는 비행에 성공하였다. 그리고 촬영한 사진들을 지구로 계속 전송하고 있다. NASA는 이 우주선이 인류역사상 처음으로 명왕성과 그 위성들을 탐사하여 태양계와 외계행성들의 기원에 대하여 획기적인 발견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연주의 과학자들은 태양계의 외각에 존재하는 행성들과 외계 카이퍼벨트(Kuiper Belt)를 구성하는 수많은 혜성이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 탐험하게 된다고 공언하고 있다.

사실 명왕성은 1930년 애리조나주에 있는 로웰 천문대에서 톰보우(C. Tombaugh) 교수에 의해서 처음 발견, 고체면을 가진 태양계 9번째 행성이 되었다. 그 후 명왕성은 카론, 히드라, 닉스, 케르베로스 및 스틱스 등 5개의 위성을 거느리는 것으로 밝혀졌고 표면이 영하 230도로 전 지형이 얼음으로 이뤄진 태양계 마지막 행성으로 추정해 왔었다. 그러나 2006년 뉴-호라이즌스 명왕성 탐사선이 발사된 같은 해 여름 국제천문연맹은 태양계 행성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명왕성을 태양계 행성에서 제외 한 바 있다.

미국 SWRI (Southwest Research Institute)와 존스홉킨스대학 응용 물리 연구소가 공동 제작한 뉴-호라이즌스 우주탐사선의 일차 목적은 명왕성의 지형구조와 지표의 화학성분 그리고 대기 성분을 알아내는 것이다. 그리고 함께 궤도 운동을 하는 5개의 위성인데 특별히 첫 번째 위성인 카론(Charon)의 궤도와 지형에 대한 연구이다. 또한 우주선은 계속 비행하여 혜성들로 구성된 카이퍼벨트까지 탐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탐사로 여러 궁금증들이 하나 하나 풀리고 있다. 잘 아는 바와 같이 지구는

달을 위성으로 가지고 있고, 서로 큰 무게의 차이(약81배)로 달이 지구를 선회하고 있다. 그런데 명왕성은 카론 위성을 비롯해 다섯 개의 위성들이 함께 신비한 궤도 운동을 한다. 여기서 명왕성은 첫 번째 위성 카론의 무게보다 불과 8.5배 더 무거운 뿐이고 단지 20,000km 서로 떨어져 있다. 따라서 이들은 서로 공동 무게 중심이 두 물체의 외부에 존재하게 된다. 그 결과로 명왕성과 카론 위성은 쌍(Binary Planets)을 이루면서 그 공동 중심으로 선회 운동을 한다. 재미있는 특징은 달이 자전하지 않으면서 지구를 선회하는 것처럼 명왕성의 위성 카론도 자전없이 서로 싱크로나이즈된 상태로 명왕성을 공전(주기 6.4일)한다.



지표 또한 명왕성은 표면이 암석으로 이루어진 반면에 카론 위성의 표면은 물과 암모니아가 얼어붙은 상태로 서로 매우 다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대기 또한 명왕성은 질소와 메탄과 일산화탄소가 주성분이다. 그러나 카론 위성에는 대기가 전혀 없다. 또 이번 탐사 결과로 명왕성은 직경이 2,330km이고 카론 위성은 1,200km로 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연주의 과학자들은 초기 태양계에서 두 행성들이 서로 충돌하여 만들어져서 같은 재질로 된 물체라고 믿어왔다. 그런데 이번 탐사로 서로 매우 다르다는 사실이 이들을 당황시키고 있다. 또한 명왕성과 카론 위성의 엄격하고 정교한 근접 궤도 운동의 관계는 우연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말하고 있다. 그들은 이 물체들이 함께 수십억 년(진화론적인 연대)동안 근접 궤도 운동을 하고 있는데 물질이 서로 전혀 다르다는 점에 매우 놀라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 명왕성을 지나가며 비행을 하는 동안 측정된 데이터들을 모두 전송받는데 약16개월이 소요된다. 앞으로 전송 데이터를 모두 분석하면 더욱 확실한 자료들이 예상된다. 여기서 데이터는 과학적 사실들이다. 이 자료들은 과거에 대하여 어떤 이야기도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는다. 동일한 과학적 데이터를 어떤 시각으로 설명하려는지 그 입장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될 것임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지금까지 보내온 초기 자료들을 통해서도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비밀한 일들과 또 성경말씀의 증거들을 보면서 놀라고 하나님 말씀의 깊이를 실감하게 된다. 첨단 우주탐사 덕분에 우연과 저절로의 관점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와 지혜를 더욱 느끼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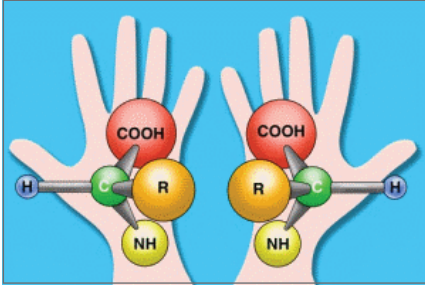
“네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욥 38:33)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이 다 그를 찬양할지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이다. 그것들이 여호와와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시므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시148:3-5)



이동용 박사
항공기계공학

실험적으로 합성된 유기물은 죽은 물질



지난 호에 이어 고등학교 과학 교과서에 실려 있는 ‘밀러의 실험과 생명의 기원의 관계에 대해 좀 더 다루어보고자 한다. 밀러의 실험은 무기물이 저절로 합성되어 유기물이 되고, 이들이 다시 생명체에 필요한 복잡한 고분자 물질이 되고, 이들이 복제능력을 갖는 원시세포를 생성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는 화학진화의 아이콘과 같다. 진화에 있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관

문을 열어주어 그 다음 모든 단계들도 가능하게 되었다는 식의 상징적 위치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밀러의 실험이 과연 무엇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인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지난 호에서는 밀러와 유레이가 선택한 실험 장치와 재료들을 먼저 검토하였는데, 모두 초기 지구 환경에 대한 비현실적인 전제를 바탕으로 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오히려 유기물이 자연 조건에서 저절로는 합성될 수 없다는 결론을 가질 수 있었다.

밀러의 실험 설계	전제
끓는 물	초기 지구 바다는 뜨거웠을 것이다.
대기 성분 (메테인, 암모니아, 수소, 수증기)	초기 지구 대기는 환원성이었을 것이다. (산소는 없었을 것이다)
전기 방전	15만 볼트이상의 방전이 일어나는 실제 번개와 매우 다른 6만 볼트의 방전 사용
냉각기와 U자관 콜드 트랩(cold trap)	초기 지구에 합성된 유기물들을 곧바로 냉각 및 격리시킬 수 있는 환경이 있었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밀러의 실험을 통해 생성된 물질이 생명체에 사용 가능한 물질인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밀러의 실험과 같이 무기물을 유기물로 합성시키는 실험들은 공통적으로 아주 특별한 인위적 조건에서 몇 가지 유기물들을 만들어냈다. 그 유기물들 중에는 아미노산, 아데닌, 시안화수소 등을 포함한다. 생명체는 주로 단

백질로 이루어지는데, 단백질은 매우 종류가 많으나 모두 아미노산의 다양한 결합에 의해 생성되기 때문에, 합성된 물질 중에 아미노산이 있다는 것은 매우 주목할 일이다.

그래서 교과서에는 “원시 지구 상태에서 화학적으로 유기물이 합성됨으로써 생명 탄생의 발판이 마련되었다는 오파린의 가설은 설득력을 얻을 수 있었다”^[1] 라고 서술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교과서의 내용에서 간과해버리는 중요한 문제가 있다. 실험에서 합성된 아미노산과 생명체에 사용되는 아미노산은 매우 큰 차이를 갖는다는 것이다.

아미노산은 광학적 이성질체 구조를 갖는다. 이는 똑같은 원자들로 구성되어 있고 결합되는 형태도 같지만, 서로 대칭을 이루는 분자구조를 가진다는 뜻이다. 이러한 구조적 특성은 빛에 대하여 하나는 오른쪽(D형)으로, 다른 하나는 왼쪽(L형)으로 회전시키는 능력을 나타낸다. 놀랍게도, 생명체에 사용되는 단백질은 100% 왼쪽으로 회전하는 L-형 아미노산으로만 구성된다. 단 하나의 D-형 아미노산이 들어있어도 그 단백질은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된다.

그런데,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아미노산들은 언제나 L-형과 D-형이 반반씩 섞인 라세미 상태로 합성된다. 게다가 아미노산은 200여 종류가 있는데, 그 중 생명체에는 단 20가지만 사용된다. 생명체에 사용되는 단백질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 20가지를 선별해내야 하며, 그 중에 반드시 L-형인 아미노산을 구별하여 정확한 위치에 배열시켜야 한다. 이러한 일은 구체적인 정보에 의해 운영되는 정밀한 시스템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자연은 스스로 그러한 선별작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 교과서는 밀러의 실험에 이어지는 내용으로 “실제로 과학자들은 뜨겁고 건조한 조건에서 200개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단백질을 만드는 데 성공함으로써 이 과정을 입증하였다”^[2]고 서술하고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단백질은 L-형과 D-형 아미노산이 섞여있으며 고유한 순서대로 배열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생명체에 사용될 수 없는 죽은 물질이라는 사실은 교과서 어디에도 언급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암, 알고 말고, 너는 알 것이다. 내가 이 세상을 만들 때부터 지금까지 네가 살아왔고, 내가 세상 만드는 것을 네가 보았다면, 네가 오죽이나 잘 알겠느냐!”(욥38:21) 우리는 거기 있지 않았고, 보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역사 과학의 한계이다. 관찰, 재현 그리고 반복이 불가능한 과거 사건에 대해 과학자들은 전제가 없이는 어떠한 설명도 시도할 수가 없다. 그리고, 분명 밀러는 과거 지구 환경에 대해 그릇된 전제를 바탕으로 실험하였고, 실험 결과도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졌다. 그러므로 밀러의 실험은 생명의 기원 문제에 대한 어떠한 시작도 알려주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생명의 자연발생이 불가능함을 지지하고 있다.

[1] 안태인 외 11인(2011), 고등학교 과학, 금성출판사, p.118

[2] 안태인 외 11인(2011), 고등학교 과학, 금성출판사, p.122

창조과학 탐사

간증

서울드림교회

창조과학탐사를 통해 그 동안 오랜 신앙 생활을 하면서 무언가 막연한 의문들이 안개 가 끼어있는 것처럼 희미하던 부분들이 환하게 밝게 빛나는 것을 느낍니다. - 진용환 <서울드림교회>

모든 것을 중지하고 이번 여행에 참석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부분을 만져주셨습니다. 소견에 옳은대로가 아니라 성경으로 돌아가기를 결심합니다. - 추성철 <서울드림교회>

하늘 나라를 향한 발걸음에 걸리적 거리던, 무거웠던 아니 어지러웠던 것들이 다 해결 되고 치워지는 역사가 이 창조과학탐사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 드리며 감사와 기쁨의 발걸음으로 주님의 자녀의 길을 가겠습니다. - 왕인숙 <서울드림교회>

지난 한주간 동안 배운 내용이 웬만한 석사 과정 한 학기 내용 이상 되는 귀한 내용들입니다. 이 짧은 기간에 이 많은 내용을 field study와 함께 우리가 알기 쉽게, 버스에서, 식당에서 또 호텔에서 설 새 없이 목이 쉬도록 강의해 주신 이재만 선교사님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 여정 가운데 우리를 지혜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성령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이번 과정에서 가지고 가는 귀한 명언들 “처음이 좋았다, 창세기가 분명해지면 믿음이 생긴다, 진화론의 반대는 성경이다, 다음 세대에 성경을 전하라”를 품고 우리 아이들과 이웃과 후손들에게 참 진리를 전하겠습니다. - 이재홍 <서울드림교회>

제 믿음 생활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희미했던 창세기가 확실하게 마음에 와 닿았고 성경 말씀이 진리임을 이제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다시 시작하리라 마음 먹었습니다.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며 말씀을 읽었으나 이제는 확신하며 더 자세히 말씀에 다가가리라 결심합니다. - 최영림

그동안 다녔던 그 어떤 여행보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보고 돌아갑니다. - 장지영 <서울드림교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마음의 확신을 갖게 된 귀한 여행이었습니다. 막연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감과 확신을 가지고 믿을 수 있게 된 그 어떤 여행과도 비교 할 수 없는 최고의 여행이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 하태경 <서울드림교회>

지금도 이 자연 피조물에서 보여지는 모든 것은 이처럼 아름다운데 무한반복 ‘처음이 좋았다’라고 선교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첫 에덴동산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욱 더 해졌던 시간이었습니다. - 박소민 <서울드림교회>



4/27 - 5/4, 2015

모태신앙으로서 창조론에 대해 특별히 의심을 하거나 진화론만 믿거나 하는 열심은 없었는데도 나도 모르게 진화론을 인정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귀한 기회에 나의 기준이 바로 설 수 있어서 감사하고 더욱더 심화적인 프로그램이 생기면 좋겠어요. 선교사님께서 힘드시겠지만.. 크리스찬으로서의 자존감도 확고해지는 귀한 시간이 됩니다. 믿지 않거나 세상에 걸쳐있는 모든 이에게 강추하고 싶은여행! - 이성희 <서울드림교회>

창조과학탐사에서 그동안 제가 부지불식간에 진화론에 세뇌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 속에서 살고 있었다고 생각하니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젠 선교사님 통해 분별 능력이 생겨 감사하고 주님이 창조하신 땅을 눈으로 보며 느끼며 더 확신이 듭니다. - 김도희 <서울드림교회>

저는 서울 드림교회 중고등부 교사입니다. 창조과학탐사를 통해 하나님의 창조를 보다 전문적이고 자세하게 우리 아이들에게 흔들림없이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가지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 이주연 <서울드림교회>

오래도록 믿음안에 있었지만 조금은 멀게 느껴졌던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이시고 그분의 증언인 성경이 위증이 아니었음을 확인하는 감사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대신 자신을 드러내려(보이는 것, 세속적인 명예, 재물, 교회의 사역과 직분까지도) 하는 것이 진화론적 사고가 아닐까 합니다. 보이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므로,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 김동건 <서울드림교회>

본질은 잊혀지고 비본질이 본질의 자리를 차지하고 사랑을 잃은 세대가 된 것에 너무나 마음이 아팠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성경으로 성경되게"하는 삶의 자세로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 차은혜 <서울드림교회>

그냥 편하게 이왕이면 더욱 유익한 여행이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행 내내 많은 생각과 충격과 사명감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 시대 위기를 맞고 있는 한국 교회에 또 다른 기회가 되길 소망하고 혼자 알고 담아두지 않겠습니다. 이번 탐사가 저와 저희 가족에게 그냥 주어지지 않았다고 확신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노력하며 살아가겠습니다. - 강현명 <서울드림교회>

좋은 기회를 통해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보고, 듣고, 깨닫게 되어서 감사 할 따름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객관적 사실임을 믿게 되는 최고의 여정임을 확신합니다. - 민경민 <탐라교회>

이번 창조과학탐사는 제 인생에 대 격변입니다. 더이상 보트를 타지 않겠다고... 노도, 닻도, 필요없는 오직 하나님이 이끄는 방주를 타겠습니다. - 이선희 <무학교회>

8/25-9/1 창조과학탐사 (안양석수교회), 이재만
 9/8-11 창조과학탐사 (은혜빛교회), 이재만
 9/14-17 창조과학탐사 (뉴저지초대교회), 이재만
 9/17 오렌지가나안교회 (노회성), CA
 9/21-24 창조과학탐사 (북가주 목회자), 이재만
 9/25-10/2 창조과학탐사 (안산동산교회), 이재만

10/3-4 시카고베들레헴교회 (이재만), IL
 10/4 LA온누리교회 (노회성), CA
 10/8-15 창조과학탐사 (두란노바이블칼리지), 이재만
 10/17 주님의영광교회 (이재만), CA
 10/17(저녁) 엘바인메델교회 (이재만), CA
 10/20 충현선교교회 (이재만), CA
 10/26-11/15 한국 방문 (이재만)

11/16-20 대만 방문 (이재만)
 11/21-25 일본 방문 (이재만)
 12/21-22 Anza Borrego탐사 (한빛교회), 이재만

1/1-2/17 제7차 ITCM 훈련
 1/4-7 창조과학탐사 (17차 유학생), 이재만
 1/26-29 창조과학탐사 (대구참좋은교회), 이재만
 2/21-27 목포사랑의교회 (이재만), 한국
 3/5-6 성광교회 (이재만), 한국

● 보다 자세한 일정은 웹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 원

Sponsorship

창조과학 선교회는 초교파 선교단체로서 여러분의 후원으로만 운영됩니다. 창조과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기를 바라는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재정적으로 후원을 하실 분들은 미국 비영리 단체(Nonprofit Organization)로 등록되어 있는 ACT(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로 후원금이 입금되도록 하시며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홈페이지(www.HisArk.com)를 방문하시면 온라인으로 후원이 가능합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Payable to :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창조과학선교회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한국창조과학회 미주지부)

Mailing Address | P.O. Box 819, Norwalk, CA 90650
 Office Address | 10529 Leeds St., Norwalk, CA 90650
 Tel. 562-868-1697 www.HisArk.com / hisark@gmail.com